

## 7

## 야마토 황족시대의 한국

4세기에 들어와 고구려는 낙랑군을 접수하고 한반도 북부지역으로 진출함과 동시에, 만주 깊숙히 세를 확장하여 부여족의 잔존세력을 흡수했다. 같은 시기에 백제는 옛 마한지역 전체와 대방군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구려의 남진과 백제의 북진은, 이 두개의 팽창하는 세력 사이에 충돌을 일으킬수 밖에 없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 근초고왕(近肖古王: 재위 346-375년)의 태자가 서기 369년 고구려군을 격파하여 5천명의 군사를 생포했으며; 서기 371년에는 근초고왕이 태자와 함께 고구려를 침공했는데, 고구려의 고국원왕(故國原王: 재위 331-371년)이 평양전투에서 화살에 맞아 죽었고; 서기 377년에는 백제 근구수왕(近仇首王: 재위 375-384년)이 3만명의 군사를 이끌고 평양을 또 침공했다고 한다.<sup><1></sup>

양서(梁書)에 의하면 “백제는 본래 고구려와 더불어 요동의 동쪽에 있었는데, 진나라(西晉, 서기 265-316년; 東晉, 서기 317-420년) 때에 이르러 고구려가 요동을 공략하자, 백제 역시 요서·진평(遼西·晋平) 두개군의 땅을 점거하여 백제군을 설치하였다(自置百濟郡)”고 한다.<sup><2></sup> 송서(宋書)에 의하면 “백제는 본래 고구려와 더불어

어 요동의 동쪽 1천여리 밖에 있었는데, 그후 고구려는 요동을, 백제는 요서를 공략하여 차지했다(略有遼西). 백제가 통치한 곳은 진평군 진평현이었다(百濟所治 謂文晉平郡晉平縣)”고 한다.<sup>43)</sup>

사마광(司馬光)이 편찬한 자치통감(資治通鑑 卷 136 齊紀2 世祖 上之下)은 영명(永名) 6년(서기 488년)에 북위(北魏)가 군사를 보내 백제를 공격했으나 백제에 패했다고 말한다(魏遣兵擊百濟爲百濟所敗). 각주에서 진나라때 백제가 요서·진평 두개의 군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晉世百濟亦據有遼西晉平二郡也) (문정창, 1984: 45, 참조.) 이들 기록은 4세기 중 어느때인가 백제가 요하 서쪽으로 진출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자치통감(卷 97, 晉紀 孝宗)은 영화(永和) 2년(서기 346년)에 백제가 특산(鹿山)에 위치했던 부여를 침공했기 때문에 부여는 연나라에 가까운 서쪽 지역으로 옮겨 갈수밖에 없었고(孝宗永和二年正月初扶餘居于鹿山爲百濟所侵陪落衰散西徙近燕), 그러자 선비족 연왕이 세자와 세명의 장수에게 1만7천 기마병을 주어 이미 자위능력을 상실한 부여를 습격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다(而不設備燕王遣世子儁帥慕容軍·慕容恪·慕容根·三將軍·萬七千騎襲扶餘). (CCI: 326, 참조.)

위의 기록들은 고구려와 백제가 그들의 전성시기에는 강병이 백만에 달해, 남으로는 오·월을 침공하고, 북으로는 연·제·노의 지역을 흔들어서 중국의 큰 두통거리가 되었다는(南侵吳越 北擣幽燕齊魯) 삼국사기(이병도 역주 11: 359)의 기록과도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이들 기록들은 또 백제가 5세기 내내 요하 서쪽지역을 보유 했었다고 해석 될수 있는 것이다. 구당서에 의하면 “백제의 국경은 서쪽으로는 바다를 건너 월주에 이르렀고, 남쪽으로는 바다를 건너 왜국에 이르렀다”고 한다.<sup>45)</sup> 신채호(1931; 1983: 571)는 위의 구절을, 백제가 일본을 복속시킨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했다.

베스트(1982)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2세기의 자치통감은, 서기 488년 북위의 군대가 백제를 공격 하다가 패했다는 놀라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삼국사기에서도 그대로 다시 나타난다. . . 이 얘기는, 바로 그 당시에 기록된 것으로 간주할수 있는 남제

서에서 자세하게 확인해 주지 않았었다면, 믿기 어려운 내용으로 생각되었을 것이다. 남제서(南齊書)에 의하면 백제와 북위가 충돌한 것은 서기 488년이 아니라 490년 이었고, 북위의 침공군은 10만의 기병 이었는데, 이들은 이름까지 분명하게 밝혀진 네명의 장군들이 지휘하는 백제군에게 패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제서는, 서기 495년에 백제 동성왕이 모유(慕遺), 왕무(王茂), 장색(張塞), 진명(陳明) 등이 인솔하는 사절을[남제 조정에]보내, 그 북위의 공격을 격퇴시킨 영웅적인 장군들을 위한 명예로운 칭호들을 얻어 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31</sup>

사실 남제서는 백제의 동성왕이 서기 490년과 495년에 6명의 장군들에게 각기 “태수”의 칭호를 부여해 줄것을 청했고, 이 요청은 남제 조정에 의해 승인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6명의 백제장군 들에게 수여된 칭호들은 (그들의 명목상의 영지를 표시하는) 지역 명칭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모두들 유별나게 오늘날의 북부 중국 지방의 이름들 인것 같이 들린다: 즉, 광양태수(廣陽太守)였던 고달(高達)에게 수여된 대방태수(帶方太守) 칭호, 양무(楊茂)에게 수여된 광릉태수(廣陵太守) 칭호, 회매(會邁)에게 수여된 청하태수(清河太守) 칭호, 모유(慕遺)에게 수여된 낙랑태수(樂浪太守) 칭호, 왕무(王茂)에게 수여된 성양태수(城陽太守) 칭호, 또 장색(張塞)에게 수여된 조선태수(朝鮮太守) 칭호 등이다.

베스트(1982)는 백제가 점유하고 있었다는 요서·진평 두개군을 엄두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말을 한다: “이 기록들에 나타나는 규모의 기병들이 중국으로부터[고구려 땅을 통과해서]위서(魏書)에는 기록도 안되면서 [한반도의 남서쪽에 있는]백제에 까지 와서 패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하지만 남제서가 그

<sup>31</sup>남제서에 의하면 수십만의 북위(拓跋北魏) 기병이[요서에 있는]백제 군현을 또다시 침공한 것은 동성왕때 (서기 490년) 때 였으며, 동성왕은[목간나 木干那 라는 장군을 포함하는]네명의 장군들을 파견하여, 무리를 거느리고[북위]오랑캐군을 기습공격하여 크게 무찌르게 했다는 것이다. (CCI: 417, 437, 참조.) 삼국사기 역시, 서기 488년에 위가 침공 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32</sup>

당시에 기록된 역사책이라는 것과 구체적인 지명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고려한다면, 당시 백제가 일단의 북위 군대를 격퇴 시켰다는 것이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베스트는 또 “통전(通典)에도 효문제(孝文帝: 拓跋宏, 재위 471-500년) 때 북위 군대가 백제를 공격하다가 패했다는 뜻의, 혼동시키지, 아니 혼동된, 기록이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의 관점을 고집한다면, 이 모든 사실들은 골치아픈 수수께끼가 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신형식, 1992: 214-224 참조.)

진서(晉書)에 의하면 백제의 근초고왕(餘句)은 서기 372년 남중국의 동진 조정으로 부터 진동장군 령낙랑태수(鎮東將軍領樂浪太守)라는 칭호를 받았다.<sup>2(6)</sup> 백제가 동진에 사절을 보낸기록은 서기 373년, 379년, 406년 그리고 416년에도 나타난다(CCI: 455).

양서에 의하면, 백제왕 수(근구수왕)가 (전장에서 잡은 포로인) 공물을 서기 375-384년 기간중에[동진 조정에] 보냈고, 백제왕 여영(餘映: 전지왕, 재위 405-420년) 또한 서기 405-418년 사이에 공물을 보냈고, 백제왕 여비(餘毗: 비유왕, 재위 427-455년)는 서기 424-453년 사이에 [송의 조정, 서기 420-479년]공물을 보냈다고 한다.<sup>(7)</sup>

송서에 의하면 백제왕 전지는 서기 416년 동진 조정으로 부터 진동장군 칭호를 받았는데, 서기 420년 유송(劉宋)의 고조가 제위에 오르자 진동대장군으로 승진 되었다한다. 서기 430년 송조정은 백제의 여비(비유왕)로 하여금 전지왕에게 수여되었던 진동대장군 칭호를 승계토록 했다. 서기 450년에 여비는 송의 조정에, 대사 풍야부(臺使馮野夫)의 서하태수(西河太守) 임명을 인준 해줄것을 요청했고, 또 역림(易林), 식점(式占), 요궁등을 청해 모두 받아갔다고 한다. 송서는 또 서기 457년 백제왕 경(慶: 개로왕, 재위 455-475

<sup>2</sup>히라노(1977) 역시 “중국 역사상 백제의 최초 등장은, 여구왕(근초고)이 동진에 사절을 보내고 조정의 칭호를 받은, 서기 372년이였다”라고 말한다.

<sup>3</sup>송서에 의하면 고구려의 장수왕(高璿, 재위 413-491년)은 서기 413년에 동진의 안제(安帝)로 부터 사지절·도독영주제군사·정동장군·고구려왕·낙랑공 언(樹持節·都督

년)이 사절을 보내 11명의 (假行職의) 사람들에게 정식 칭호를 수여 해줄 것을 청했고, 송의 조정은 서기 458년에 백제가 청한대로 각종의 칭호를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즉, 행(行)관군 장군 우현왕(右賢王) 여기에게 관군장군을, 행정로장군 좌현왕(左賢王) 여곤과 행정로장군 여취에게 정로장군을, 행보국장군 여도에게 보국장군을, 등등.<sup>3 (8)</sup>

양서는 남제(서기 479 - 년) 조정이 백제왕 태(太)에게 서기 483 - 년 사이에, 도독·백제제군사·진동대장군·백제왕의 칭호를 주었는데, 그는 서기 502년에 양의 조정에 의해 정동장군으로 승진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양서는 또 백제가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쇠약 해져서 수도를 남쪽으로 옮겼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말들은 연대기록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백제가 수도를 공주로 옮긴 것은 문주왕 때였다. 서기 479-501년간은 동성왕의 재위기간 이었고, 서기 501-523년간은 무녕왕 재위 기간이었다.

양서는 또 백제왕이 서기 521년에 사신을 보내, 백제가 “고구려와 여러차례 싸웠으나 이제는 서로 화친을 하게 되었다”고 말해왔는데, 양의 조정은 이 말을 “백제가 다시 강국이 된것”이라고 이해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양의 조정은 백제왕 여용(餘隆, 武寧王)에게 영동대장군 칭호를 주었고, 무녕왕이 죽자 그의 아들 명(聖明, 재위 523 - 년)에게 수동장군(綏東將軍) 칭호를 수여했다고 한다.<sup>4 (1)</sup>

무녕왕능에서 발굴된 매지권(買地券)의 명문에는 중국에서 황제가 사망했을 경우에만 사용하는 표현(즉, 崩)을 사용한 것이 발견되었다. 이것을 보면 중국의 왕조가 백제 왕들에게 여러가지 칭호

營州諸軍事·征東將軍·高句麗王·樂浪公(璦)의 칭호를 받았다고 한다. 송서는 고구려의 장수왕이 서기 420년에 대장군으로 승진되었고, 또 2년후에는 무제에 의해 동평주제군사(督平州諸軍事)칭호가 추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9)</sup> 왕(1980)에 의하면 영주(營州)는 서기 570년대 초에 태수 가오(高) 바오닝의 치하에 있었는데, 그는 북위의 왕실과 연관이 있었던것 같았고, 또 그 북위 왕실과 고구려 왕실은 모두 가오(高)라는 성씨를 가진 것으로 비추어 보아, 종족상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한다.

를 수여한 것은, 어떠한 구속을 주기 보다는 단순히 상징적인 행위에 불과 했었던것 같다. (김 정학, 1981: 293 참조.) 오히려 김부식이 12세기에 와서 쓴 삼국사기에는, 무녕왕의 사망을 표현할 때 중국에서 공경대부들이 사망 했을때 쓰는 표현(죽, 薨)을 사용했던 것이다.

양서에 의하면 백제의 수도는 고마(固麻)라고 불렀고, 지방의 고을들은 담로(擔魯, 철로)라 불렀는데 이는 중국의 군현(郡縣)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한다. 백제에는 22개의 담로가 있었는데, 모두 왕실의 자제종족(子弟宗族; 別)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라 하면서, 그 나라는 왜와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其國近倭) 문신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sup><10></sup> 양서는 또 백제(성명)왕이 서기 534년과 541년에 양의 조정에 공물을 보내면서 열반경 등의 해설서적, 모시박사(毛詩博士), 공장기술자, 그림 그리는 화공(畫師)등을 보내 줄것을 청했는데, 양의 조정이 백제가 청한대로 모두 보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10></sup>

송서는 서기 458년[개로왕 때]유송의 황제가 11명의 백제왕족들에게 “왕”과 “장군”이란 명칭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백제의 왕이 “왕”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왕자들[와케]에 의해서 받들어지는 “대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sup><11></sup> 남제서는 서기 490년에 백제왕(東城王, 재위 497-501년)이 다섯명의 “왕”, 세명의 “후(候)” 그리고 여섯명의 “태수(太守)” 명단을 제출했고, 제의 조정은 이들을 공식으로 인정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12></sup> 분명히 백제의 왕은 “대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1918년에 한 일본인 인류학자(谷井)는, 지금의 전라남도 나주(羅州 潘南面)에서 발견된 높이 6미터, 둘레 33미터의 피라미드 모양을 한 고분에서 금동관(金銅冠), 환두대도(環頭大刀), 삼지창(三枝槍), 활, 화살등을 발굴했다. 이들은 모두 5세기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 인지 일본 식민지 당국은 이들 발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출판하지 못하게 했다. 1986년 2월에 지금의 전라

북도 익산(益山 熊浦面)에서 5세기 백제 고분이 발굴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역시 한개의 금동관이 금동신발과 마구류들과 함께 출토되었다.<sup>4</sup> 이들 물건은 분명히 당시 왕들의 소유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익산은 (나주와 마찬가지로) 백제의 수도였던 적이 없었다. 하지만 우리가 중국 사서들의 기록을 고려 한다면, 이들 고고학적 발견은 백제가 봉건제도를 유지했었고, 또 왕족들[와케, 별]에게 왕이나 태수의 칭호와 함께 군현들을 나눠 주었다는, 역사 기록들과 일치한다고 볼수 있다.

주서는 백제 사람들의 습속은 기사(騎射)를 숭상하고 아울러 경전과 사서를 애독하니, 뛰어난 사람은 제법 문장을 엮을줄도 알았고, 음양오행(陰陽五行)도 이해 했다고 한다. 백제 사람들은 송의 원가력(元嘉曆)을 채용 했으며, 의약 및 점치고 관상보는 법도 알고, 장기·바둑을 즐겼는데, 승려와 비구니, 절과 탑등은 매우 많으나 도사(道士)는 없었다고 한다.<sup><13></sup> 주서는 또 백제사람들이 관리로서의 업무 처리도 잘하며(能吏事), 여러종류의 악기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말한다.<sup><13></sup>

송서에 의하면 왜왕 찬(讚)은 서기 421년에 유송의 무제로부터 종류미상의 지위와 칭호를 수여 받았다. 문제(文帝, 재위 424-453년) 때에는 왜왕 진(珍)이 자칭, 사지절 도독 왜 백제 신라 임나 진한 모한 6국제군사 안동대장군 왜국왕(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이라 부르며, 사신을 보내 이 칭호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줄것을 청했다.<sup>5</sup> 송서에 의하면 무제는 좀

<sup>4</sup>김원웅(1986: 352)에 의하면 나주의 웅관속에서 발견된 금동관 종류는, 평양근처의 고구려 고분 벽화에 그려져 있는 무사가 쓰고 있는 것과 같은 모양이라 한다. 나무 모양으로 곧게선 왕관 종류는 고구려와 백제 에서도 사용 되었지만, 신라에 가서는 우리가 신라금관에서 볼수 있는 모양으로, 아주 평범하게 양식화 되었다. 북큐우슈우(熊本縣)의 후나야마고분(船山古墳) 내용물은 나주와 익산 고분에서 발견된 것들과 아주 비슷하다.

<sup>5</sup>에가미(1962)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왜왕 진이 자칭한 칭호가, 단순히[진한, 마한 같이]오래전에 사라져버린 나라 이름들을 늘어 놓음으로서, 자기의 영역이 넓

더 간단하게 안동장군 왜국왕이란 칭호를 수여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14></sup>

왜왕은 유송 조정에서 도독육국제군사(都督六國諸軍事)라는 칭호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줄것을 거듭 청했던것 같다. 끝내 서기 447년 문제는 왜왕 사이(濟)에게 그가 자칭한 칭호를 수여했는데, 그 6개 국가 명칭중에서, “백제”를 “가라(加羅)”로 대체 시켰다. 후에 왜왕 부(武)는 백제와 가라를 포함해, 자칭 도독 7국제군사 안동대장군 이라 했다.

송서는 왜왕 부가 서기 478년 순제(順帝)때, 유송 조정에서 보낸 장문의 아주 흥미있는 서간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글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직접 볼수 있게 하는 아주 희귀한 내용을 담고있다: “우리나라(倭)는 아주 머나먼 곳, 바다 멀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옛적 우리 할아버지[진무-오오진]때부터, 갑주를 입고, 잠시를 쉬지도 않으며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동으로는 모인(毛人, 아이누) 55개국을 정복하고, 서쪽으로는[남큐우슈우의 쿠나 사람을 포함한]66개국의 오랑캐 무리들을 복속시키고, 바다건너 북쪽으로는[진무-오오진이 일본으로 건너올때 지나 오게된 가야지역과, 백제 근초고왕이 정복하는 것을 도와준 옛 마한지역의]95개국을 평정했습니다 . . . 그리하여 나라의 질서가 바로 잡히고, 대대로 빠짐없이 우리 선조들은[중국의]조정에 문안을 드렸습니다 . . . 백제를 거쳐서 그곳에 가기 위해서 비록 먼 길이지만, 우리는 선박을 준비 했습니다. 하오나 고구려가 무도하게 그 배들을 잡으려 했고, [백제]변경을 침략하며, 사람들을 거듭해서 살해 했습니다. 이때문에 우리는 매번 지체하게 되고 순풍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 . . 저의 죽은 아버지가(亡考) 조정으로 가는 길을(天路)가로 막는 적을 보고 분개하여, 정의감에 우러나 백만의 사수를 모아 크게 거사를 하려 했는데, 때마침 저의 부친과 형이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奄喪父兄), 마지막 단계에서 그 계획이 좌절 되었습니다 . . . 하지만 이제 우

다는 것을 뽑내 보려는 행위”로 간주한다고 말한다.



리는 다시금 무기를 정돈해서 제 부친과 형님이 의도한 바를[父兄之志, 즉 고구려의 계속 되는 침략으로 고통을 받는 백제의 원수를 갹기위해]실행 하려합니다. . . . 그러므로 저를 이 작전의 최고 지휘자로 임명해 주시고, 제 부하들 또한 충절을 권장토록, 직위와 칭호들을 수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청원을 해서 왜왕 부는 서기 478년에 사지절 도독 왜 신라 임나 가라 진한모한 6국제군사 안동대장군 왜국왕 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sup><15></sup>

이들 기록중 흥미를 끄는 점은, 야마토 지배자들 마음속에 간직되고 있는 마한, 진한, 변한 같이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 버린 나라들이다. 5세기에는 이미 이들 삼한 제국들은 중국 사서들 에서도 독립된 정치적 존재로 기록되지 않았었다. 마한과 진한을 구성했던 대부분의 부락국가들은 4세기 말경까지 백제와 신라에 흡수되었다. 변한 하나만이 가야(伽耶)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느슨한 형태의 부락국가 연맹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4세기 후반에 한반도를 떠난 야마토 왜의 지배자들 마음속에는 옛 삼한 제국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다. 야마토 이것은 몇개의 옛 마한·진한의 국가들이, 가야연맹에 참여 하는 형태로, 존속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무튼 중국 사람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해 무관심 했고, 단지 왜의 통치자가 제출한 6개 혹은 7개의 국가명단에서, 백제 이름만을 분명하게 삭제시켜 버린것이다. 하기는 신라는 서기 565년까지 중국 왕조들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송의 통치자들 에게는 신라라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존재였던 것이다.

고구려는 서기 427년에 압록강변의 국내성(國內城)으로부터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사실 이 무렵에 와서 백제는, 끊임없이 전진해오는 고구려 세력에 대처 하기 위해, 신라 혹은 야마토 왜와 동맹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 백제는 결국 서기 475년에 수도를 한강변의 한성(漢城, 지금의 서울지역)으로부터 지금의 (충청 지방의) 공주로 옮기지 않을수 없게 되었고, 서기 538년에는 수도를 더 남쪽에 있는 부여(사비)로 옮기게 되었다.

한강변에 위치했던 백제의 첫째 수도는, 서기 475년에 고구려 군에 의해 파괴되었다. 김원용(1986: 223)은 “백제의 개로왕 (재위 455-475년)은 전투에서 사망했고, 후에 무녕왕(재위 501-523)이 된 당시 13살 먹은 시마왕자를 포함한 왕족들은, 서기 475-538년 기간중 백제의 두번째 수도가 되었던 공주로 달아났다”라고 말한다.<sup>6</sup> 무녕왕능은 1971년에 발견되었다. 이 능은 그 내용물과 건축년도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최초의 고분이다. 이것을 보고 김원룡(1986: 226)은 “그 왕능의 유물들은 삼국시대 뿐만아니라 당시 고분시대 일본에서 나온 고고미술사적 물건들의 편년을 작성하는데 분명한 단서들을 제공한다”고 결론을 내렸다.<sup>7</sup>

페어뱅크·라이샤워·크레이그(1973: 284)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반도의 남동쪽 끝인, 현재의 경주부근에 위치한 수도를 중심으로한 신라는,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미개한 지역이었고 중국의 영향도 별로 받지 않았다. 초기에는 백제와 일본의 침략자들에 대항하면서 자신을 보전하기에도 급했었다 . . .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은 백제, 고구려 보다 덜 부식되고, 오히려 그 부족적이고 귀족적인 사회구조가, 더 큰 응집력과 지구력을 준 것 같다.”<sup>8</sup>

<sup>6</sup>일본서기(NI: 367)는 다음과 같이 백제기(百濟記)를 인용하고 있다: “개로왕 을 묘년 겨울, 고구려의 대군이 몰려와 7일낮, 7일밤 대성(大城)을 공격했다. 왕성(王城)은 항복했고, 드디어 위례(尉禮)를 잃게 되었다. 국왕과 왕후는 적의 손에 잡혔다.”<sup>(16)</sup> 일본서기는 또 유우라쿠(雄略)가, 고구려에 의해 백제가 파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문주왕(재위 475-477년)에게 구마나리(久麻那利, 공주)를 주어 백제를 도왔다”고 기록하고 있다.<sup>(17)</sup>

<sup>7</sup>삼국사기는 고이왕이 서기 216년에 금화식오라관(金花飾烏羅冠)을 쓰고 정사를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김원용(1986: 199)은, 당시 중국 문서에는 백제에서 비단 모자가 사용되었고, 금화식(꽃모양의 금장식)은 임금 들만이 사용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말한다. 사실 무녕왕능 에서는 오랜 기간동안 부패된 비단모자에 장식으로 사용된 한쌍의 금화식이 발견되었던 것이다.

<sup>8</sup>페어뱅크·라이샤워·크레이그(1973: 286-287)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서기

구당서에 의하면 당의 고조(高祖, 재위 618-626년)는 서기 624년에 고구려의 영유왕(재위 618-624년)에게 “오동군왕 고려왕(遼東郡王 高麗王)”의 칭호를, 백제 무왕(재위 600-641년)에게는 “대방군왕 백제왕(帶方郡王 百濟王)”의 칭호를, 그리고 신라의 진평왕(재위 579-632년)에게는 “낙랑군왕 신라왕(樂浪郡王 新羅王)”의 칭호를 각각 수여했다.<sup>9 <19></sup>

수왕조(서기 589-617년) 다음에, 중국은 그 뛰어나고 풍요로운 당의 시대(서기 618-906년)로 진입하여, 옛 한나라때 중국의 전성

589년 수나라에 의한 중국 재통일의 결과로, 중국의 군사력은 다시 한번 한반도로 침투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그러나 이번에는 한의 무제가 기원전 108년에 한국을 복속시켰을 때의 (고)조선 보다 훨씬 강력한 왕국들을 상대하게 되었다. 서기 589년 고구려는 대규모의 수나라 공격을 격퇴시켰다. 서기 612-614년간 세 차례에 걸쳐 행해진 수의 대원정은 너무나도 참패로 끝났기 때문에, 바로 수왕조 몰락의 원인이 되었다. 서기 618년에 수를 계승한 당 왕조는, 서기 644년과 659년 사이에 일련의 대규모 원정들을 도모 했었으나, 수의 경험보다 나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당나라는 서기 660년에 전략을 바꾸어 백제에 대규모 해상 군단을 파견했다. 신라의 도움을 받아 중국은 백제를 멸망시키고 . . . 고구려로 방향을 바꾸어, 서기 668년 그들 (당과 신라)은 고구려 왕국을 끝장내었다 . . . 당은 한나라가 했던 것 같이, 한국 정복 결과를 그들 제국속에 편입 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의 도움을 받아 10년내에 중국이 한반도 전역에서 철수하도록 만들었다 . . . 신라는 오늘날 한국 영토의 대부분을 점령하여 통일국가로 등장했다.”

<sup>9</sup>수서에 의하면, 수의 원제(재위 581-604년)는 고구려의 영양왕(재위 590-618년)과 백제의 위덕왕(재위 554-598년)과, 신라의 진평왕에게(서기 594년에) 각각 동일한 칭호들을 수여 했다한다.<sup><20></sup> 베스트(1982)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천자에 의해 인가된 칭호들은 아주 특유하게 신성한 합법성을 보유한 것같이 보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수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통치자들은 그 칭호들을 얻으려 노력했다 . . . 중국내에서는 먼 나라로 부터오는 사신들의 광경이 그들의 위신을 높이는 것이었다 . . . 칭호와 직위를 수여하는 황제의 힘은 6국시대에 특히 중요했다 . . . 이 당시의 황제들이란 변방의 왕들을 복속시킬 위치에 있지 못했다. 그 때문에 칭호들의 수여가 변방 왕들의 조공을 유도하는 미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 . . 6조시대에 이러한 칭호의 수여라는 것은 피차간에 의무규정이 거의 없는 상징적인 행위에 불과했다.”

시대를 재현했다. 샌섬(1931: 84-85)은 “아마도 당시 중국은, 정치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발전했으며, 가장 잘 통치된 나라였을 것이다. . . . 거대한 정규군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빼놓고는 세상 모든 적과 싸워서 승리했다. 한국인들은 한 차례 이상 중국의 대규모 침공을 격퇴시켰다, 특히 서기 646년에 . . .”라고 말한다.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백제가 먼저, 그리고 나서는 고구려가, 신라 세력과 연합을 한, 당군에게 정복되었던 것이다.

당서(唐書)는 서기 660년 당나라 소정방(蘇定方)이 백제를 쳐부시고, 왕, 왕자, 소왕효(小王孝), 소왕연(小王演), 그리고 58명의 수령들을 생포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백제는 5부, 37개군, 200개의 성, 그리고 76만호를 가지고 있었다.<sup>10</sup> <21> 서기 668년 고구려 또한 나·당 연합군에 정복되었다. 당은 중국의 군대를 가지고 백제와 고구려를 점령하고, 총독을 두어 통치하려 했다. 당의 이러한 제국주의적 의도는 신라와의 충돌을 초래했다.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재건 세력들로 부터 지원을 받아, 서기 676년 당군을 축출하고 한반도를 전부 통일할 수 있었다.<sup>11</sup>

<sup>10</sup>일본서기(NII: 267)는 증류미상의 기록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서기 660년]7월 10일, 대당의 소정방은 수군을 이끌고 미자(尾賚) 항구에 도착했고, 신라 왕 김춘추(春秋智)는 병마를 이끌고 노수리산(怒受利山)을 점령하여, 그들은 백제를 양쪽에서 공격했다. 서로 싸우기 3일, 동월 13일 그들은 왕성을 파괴하기 시작했다(始破王城).”

<sup>11</sup>당시 신라와 야마토 왜는 모두 당나라(서기 618-907년)의 팽창정책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었다. 하자아드(KEJ: 4, 277)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서로 나름대로의 이해 때문에 서기 676년 천무(天武)는 신라에 사절을 보냈고, 신라는 공물과 함께 사신을 보내 정치적인 의견교환을 했다. 이들사이의 관계는 서기 730년대까지 화목했었다. 그후 고구려의 유민이 다른 부족들과 함께 만주에 세운 발해(渤海)가 중국을 북동쪽에서 위협하게 되자, 중국은 서기 735년에 다시금 신라와 연합하는 조치를 취했다. 결과로 신라는 중국의 위협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되었고, 따라서 일본을 희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